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6. 06. 20. ~ 06. 26.

전남농업정보

90

VOL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배추 · 무 · 양배추 생산 및 출하, 가격 전망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순천시, 농·특산물 수출 활기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우슬 GAP 고품질 생약재 생산을 위한 적정 작형방법 구명
· 벼 부분경운 이앙으로 생산비 절감 효과 커

정책동향

· 2015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72천톤, 정부로 이관
· 농식품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해외 농업정보

· 베트남 신선딸기 시장동향 및 수출전략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5

- ▶ 장마전선 영향으로 24, 27일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8~19mm)보다 많겠음

❁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8

- ▶ 주의보 :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복숭아순나방, 응애류 등
- ▶ 예 보 : 과수 잎말이나방, 심식나방, 진딧물 등

❁ 농산물 주간 동향(관측정보) 9

- ▶ 배추 생산 및 출하, 가격 전망
- ▶ 무 생산 및 출하, 가격 전망
- ▶ 양배추 생산 및 출하, 가격 전망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5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17

- ▶ 광양시, 수박 수정별 지원 1석 3조 효과 거둬
- ▶ 보성군, 시설원예농가 스마트 팜으로 첨단농업 실현
- ▶ 강진군, 강진건강 10대 농식품 여주 본격 육성
- ▶ 해남군, 뜰섬 108ha 친환경 쌀 재배 본격 시작
- ▶ 장성군, 명품 장성베리, 맛도 영양도 Very Good~!
- ▶ 신안군, '신안 대과' 명품화를 위한 무농약 시범재배 추진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23

- ▶ 순천시, 농·특산물 수출 활기
- ▶ 올 여름철 멜론류 과일 수출...전년보다 소폭 증가 전망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26

- ▶ 우슬 GAP 고품질 생약재 생산을 위한 적정 작휴방법 구명
- ▶ 우슬 GAP 고품질 생약재 생산을 위한 적정 시비방법 구명
- ▶ 우슬 GAP 고품질 생약재생산 적정 건조 및 저장법 구명
- ▶ 우슬 우량종자 안정생산을 위한 채종 적기 구명
- ▶ 벼 부분경운 이앙으로 생산비 절감 효과 커
- ▶ 콩 생산비 절감 성공 모델농가 양성
- ▶ 자두와 살구 맛을 동시에 맛 볼 수 있어
- ▶ 아열대과수 패션프루트 현장컨설팅 추진
- ▶ 30% 차광·멀칭재배하면 여름철 국화 수량과 품질 향상
- ▶ 전남농기원 운영 농식품 창업가 양성과정 중간성과 높아

❁ 정책 동향 38

- ▶ 2015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72천톤, 정부로 이관
- ▶ 농식품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 한국형 시설원예 삼중발전 시스템 개발

❁ 해외 농업정보 43

- ▶ 베트남 신선딸기 시장동향 및 수출전략
- ▶ 이탈리아, 유제품에 원산지표시 의무화 법안 공포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6. 20.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미국산 밀 선물 가격은 풍부한 국제 공급과 겨울 밀 수확에 대한 기대감으로 며칠 간 하락하였음.
 - 옥수수 : 미국산 옥수수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2.9% 상승하였음.
 - 대두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선물가격은 수출 상품의 전반적인 강세와 미국의 새로운 수출 판매 발표에 의해 지난 금요일 전일 대비 2.2% 상승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 · 日)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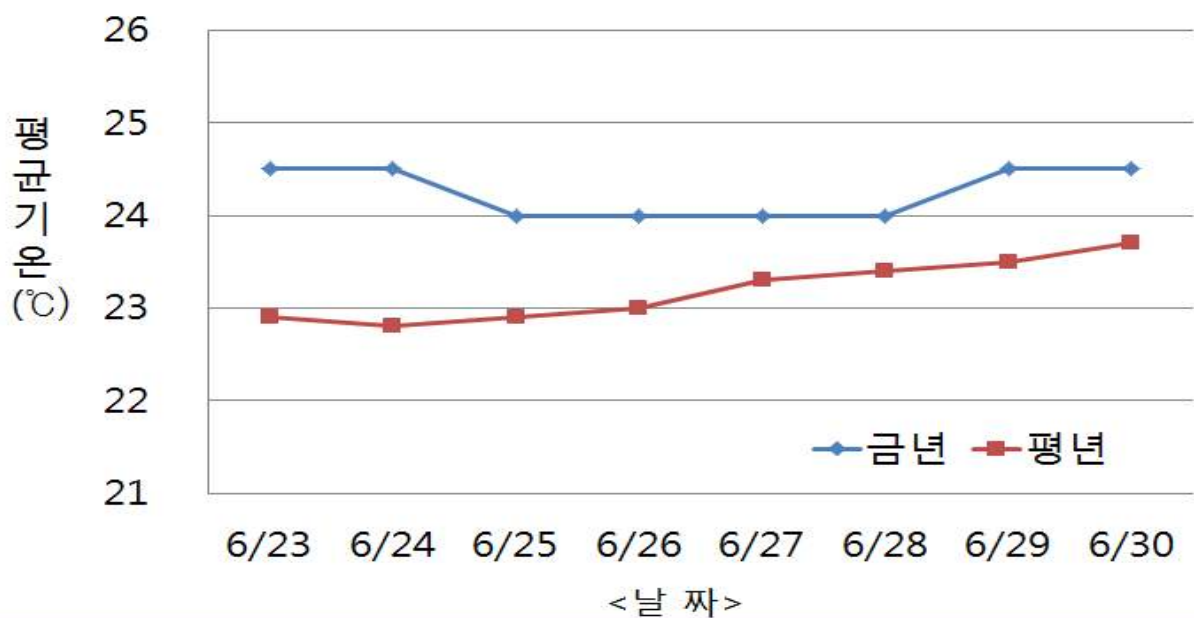
- ▶ 2016 농수산물식품 창업 콘테스트
- ▶ 농식품 공공데이터로 창업에 날개를 달다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4.3	23.2	1.1	27.1	27.3	-0.2	21.4	20.0	1.4	11.0
6. 23.(목)	24.5	22.9	1.6	28.0	27.2	0.8	21.0	19.5	1.5	11.4
6. 24.(금)	24.5	22.8	1.7	28.0	27.1	0.9	21.0	19.5	1.5	11.9
6. 25.(토)	24.0	22.9	1.1	27.0	27.1	-0.1	21.0	19.6	1.4	13.0
6. 26.(일)	24.0	23.0	1.0	26.0	27.1	-1.1	22.0	19.8	2.2	12.8
6. 27.(월)	24.0	23.3	0.7	26.0	27.4	-1.4	22.0	20.0	2.0	10.4
6. 28.(화)	24.0	23.4	0.6	27.0	27.6	-0.6	21.0	20.3	0.7	8.4
6. 29.(수)	24.5	23.5	1.0	28.0	27.6	0.4	21.0	20.4	0.6	10.5
6. 30.(목)	24.5	23.7	0.8	27.0	27.6	-0.6	22.0	20.7	1.3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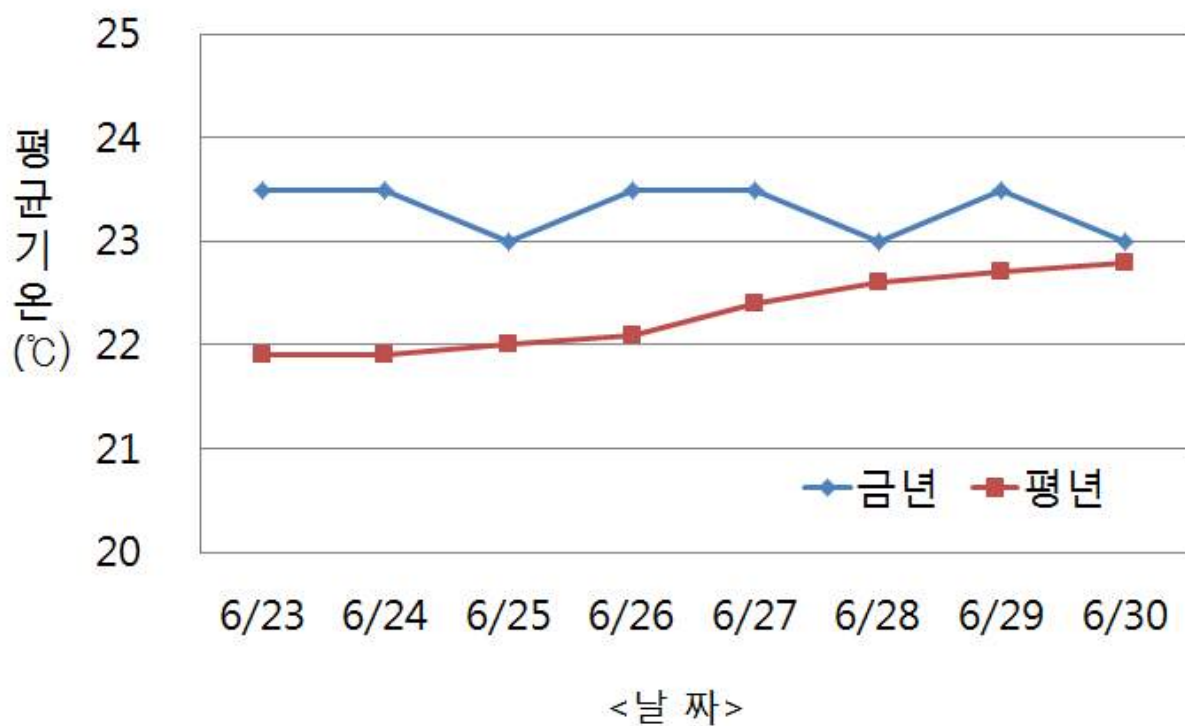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3.3	22.3	1.0	25.4	25.9	-0.5	21.3	19.7	1.6	10.6
6. 23.(목)	23.5	21.9	1.6	26.0	25.7	0.3	21.0	19.2	1.8	11.4
6. 24.(금)	23.5	21.9	1.6	26.0	25.6	0.4	21.0	19.2	1.8	12.2
6. 25.(토)	23.0	22.0	1.0	25.0	25.7	-0.7	21.0	19.4	1.6	12.8
6. 26.(일)	23.5	22.1	1.4	25.0	25.7	-0.7	22.0	19.5	2.5	12.6
6. 27.(월)	23.5	22.4	1.1	25.0	26.0	-1.0	22.0	19.7	2.3	9.5
6. 28.(화)	23.0	22.6	0.4	25.0	26.1	-1.1	21.0	19.9	1.1	8.5
6. 29.(수)	23.5	22.7	0.8	26.0	26.2	-0.2	21.0	20.0	1.0	9.2
6. 30.(목)	23.0	22.8	0.2	25.0	26.2	-1.2	21.0	20.3	0.7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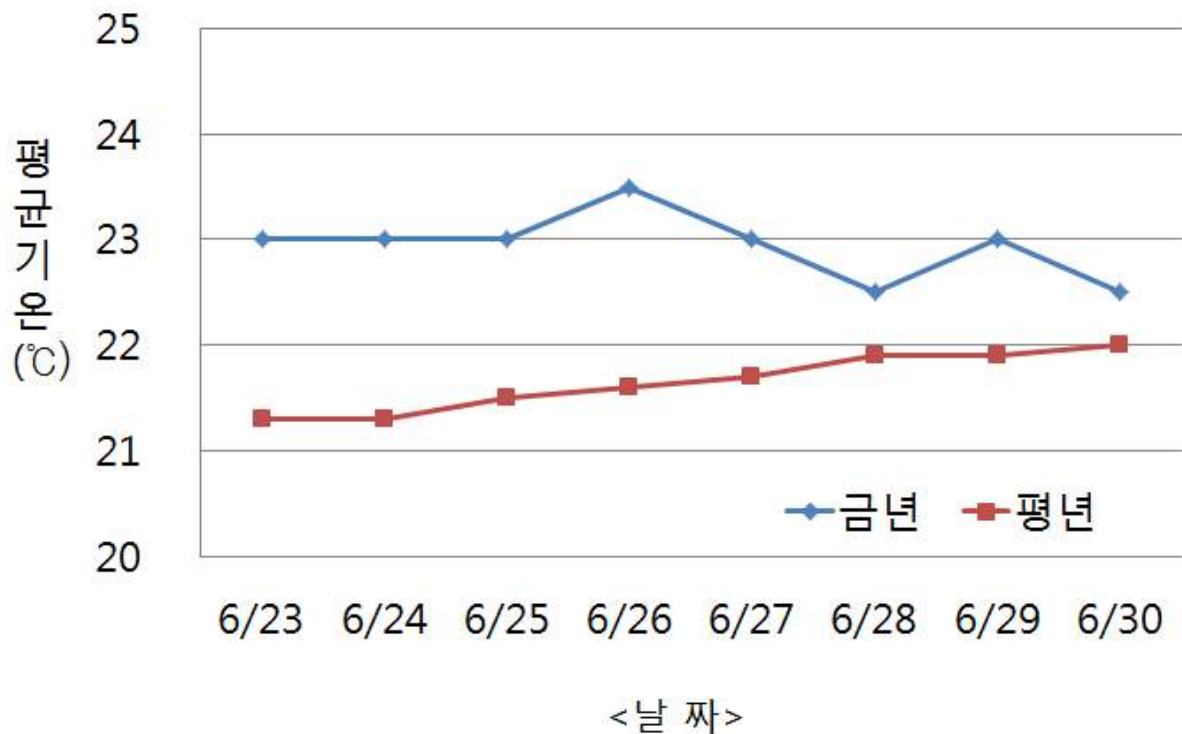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2.9	21.7	1.3	24.6	24.4	0.3	21.3	19.7	1.6	12.7
6. 23.(목)	23.0	21.3	1.7	25.0	24.1	0.9	21.0	19.3	1.7	13.5
6. 24.(금)	23.0	21.3	1.7	25.0	24.1	0.9	21.0	19.3	1.7	15.7
6. 25.(토)	23.0	21.5	1.5	25.0	24.3	0.7	21.0	19.4	1.6	16.3
6. 26.(일)	23.5	21.6	1.9	25.0	24.3	0.7	22.0	19.6	2.4	15.6
6. 27.(월)	23.0	21.7	1.3	24.0	24.5	-0.5	22.0	19.7	2.3	12.4
6. 28.(화)	22.5	21.9	0.6	24.0	24.6	-0.6	21.0	19.9	1.1	9.6
6. 29.(수)	23.0	21.9	1.1	25.0	24.5	0.5	21.0	20.0	1.0	9.2
6. 30.(목)	22.5	22.0	0.5	24.0	24.5	-0.5	21.0	20.1	0.9	9.5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2016. 6. 16. ~ 6. 30.)

농촌진흥청은 벼 저온성해충, 고추 역병, 탄저병, 수박 덩굴마름병, 과수 돌발해충, 노지작물 진딧물 등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 하오니 농작물의 병해충 관리를 잘하여 피해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 주의보 :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복숭아순나방, 응애류

○ 발생이 빠르고 일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찰

□ 주의보 : 벼 메뚜기

○ 최근 고온으로 경북·충남 친환경 재배 지역에 메뚜기가 발생하고 있어 발생 초기 공동방제

□ 주의보 : 사과·배 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등 : 검역병해충

○ 확산방지를 위하여 봉지씌우기 작업, 전정 작업 시 작업도구를 철저히 소독하고 발생 과원의 잔재물 등 외부로 유출 금지

□ 예보 : 과수 잎말이나방, 심식나방, 진딧물 등

○ 성페로몬트랩 등 활용 정밀예찰, 발생초기 방제

□ 예보 : 과수 검은별무늬병, 갈색무늬병, 세균성구멍병 등

○ 예방 위주의 사전방제(봉지씌우기 전 중점 방제) 실시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3. 농산물 주간 동향(관측정보)

배추 생산 및 출하, 가격 전망

□ 생산전망 : 노지봄배추 생산량 작년보다 증가

- 노지봄배추 생산량은 작년보다 13% 증가, 평년보다는 31% 감소한 12만 4천톤으로 전망된다.
- 노지봄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8% 증가, 평년보다 28% 감소한 1,576ha이며, 예상단수는 5월에 출하된 터널봄배추 작황 부진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4% 감소한 7,874kg/10a으로 추정된다.

○ 노지봄배추 생산량 추정

(단위 : ha, kg/10a, 톤)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6년		1,576	7,874	124,081
2015년		1,333	8,218	109,542
평년		2,179	8,208	178,823
증감률 (%)	작년대비	18.2	-4.2	13.3
	평년대비	-27.7	-4.1	-30.6

□ 생산전망 : 고랭지배추 재배(의향)면적 작년 대비 감소

- 고랭지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 10% 감소한 4,611ha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 작물로는 양배추·감자, 특용작물 등으로 나타났다.
- 고랭지배추 추정생산량(평년단수 적용)은 16만 2천~16만 9천톤으로 작년보다 5~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하전망 : 6월 봄배추 출하량 작년보다 증가

- 6월 전체 배추 출하량은 노지봄 및 준고랭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6월 노지봄배추 출하량은 출하면적이 작년보다 10% 증가, 단수는 생육기 기상 양호로 1% 많아, 작년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6월 준고랭지배추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가 작년보다 각각 5, 2% 증가하여, 7%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6월 배추 출하량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

구분	노지봄	준고랭지	전체
출하면적	10.3	4.8	10.0
단수	0.8	1.7	0.8
출하량	11.1	6.6	10.9

□ 가격전망 : 6월 가격은 전월보다 하락할 전망

- 5월 말 현재, 노지봄배추 평균 포전거래 가격은 작년보다 상승한 5,500원/3.3m² 준고랭지배추는 6,000~7,000원/3.3m²으로 작년 동기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6월 배추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대량 수요처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노지봄배추 출하량이 많아 전월(10,350원)과 작년(7,110원)보다 하락한 상품 10kg당 5,0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6월 가격은 노지봄배추 출하지역 확대로 상순에서 하순으로 갈수록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양호했던 노지봄배추 작황이 6월 상·중순에 고온으로 나빠질 경우, 가격은 전망치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무 생산 및 출하, 가격 전망

□ 생산전망 : 시설봄무 생산량 작년과 평년보다 증가

- 시설봄무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48, 13% 많은 1만 7천톤으로 전망된다.
- 시설봄무 재배면적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41, 9% 증가한 167ha로 조사되었다.
- 금년 시설봄무 파종시기는 작년 및 평년보다 앞당겨지고 작황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어 단수는 작년 및 평년보다 높은 10,418kg/10a으로 추정된다.
- 시설봄무 생산량 추정

(단위 : ha, kg/10a, 톤)

구 분		재배면적	단 수	생산량
2016년		167	10,418	17,440
2015년		119	9,875	11,752
평년		153	10,136	15,508
증감률	작년대비	40.7	5.5	48.4
(%)	평년대비	9.4	2.8	12.5

□ 생산전망 : 노지봄무 생산량 작년과 평년보다 증가

- 노지봄무 생산량은 11만 2천톤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3,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체 봄무 생산량은 13만 톤으로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6, 5%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체 봄무 생산량 추정

(단위 : ha, 톤)

구분		재배면적	생산량
2016년		1,369	129,836
2015년		996	111,558
평년		1,366	123,463
증감률 (%)	작년대비	37.4	16.4
	평년대비	0.2	5.2

□ 출하전망 : 6~7월 무 출하량 작년보다 증가

- 6월 전체 무 출하량은 월동무 저장 출하량이 감소하나, 봄무 생산량 증가로 작년보다 9%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월동무 저장 출하량은 재고량 감소로 작년 동기보다 47% 적으며, 6월 상순까지 출하가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설봄무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보다 47% 많고, 노지봄무는 출하면적 증가로 작년보다 9% 10%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전망 : 6월 가격은 전월보다 하락할 전망

- 금년 노지봄무 평균 포전거래 가격은 금년 파종기 무 시세가 높아 작년보다 3.3m²당 1,000~2,000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금년 준고랭지 1기작의 평균 포전거래 가격은 평당 9,000~10,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작년에는 초기에 8,000원 내외이었으나, 주산지 가뭄으로 파종이 지연되거나 재 파종됨에 따라 후기에는 11,000원 내외까지 상승하였다.
- 6월 무 가락시장 상품 18kg당 평균 도매가격은 봄무 출하량 증가로 작년(13,270원)과 평년(11,070원) 동월보다 낮고, 전월(15,310원) 대비 하락한 9,0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향후 무 가격은 봄무 작황 및 출하 상황, 소비대체 품목의 가격 동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양배추 생산 및 출하, 가격 전망

□ 생산전망 : 봄양배추 생산량 작년보다 증가

- 봄양배추 전체 생산량은 6만 7천톤으로 작년보다 6% 증가하나, 평년보다는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봄양배추 재배면적은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2, 5% 증가한 1,463ha로 조사되었다.
- 봄양배추 단수는 노지봄양배추 작황이 좋아 작년보다 4% 증가한 4,565kg/10a으로 추정된다.
- 전체 봄양배추 생산량 추정

(단위 : ha, kg/10a, 톤)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6년		1,463	4,565	66,797
2015년		1,432	4,412	63,186
평년		1,399	4,811	67,318
증감률 (%)	작년대비	2.2	3.5	5.7
	평년대비	4.6	-5.1	-0.8

□ 출하전망 : 6월 출하량 작년보다 증가

- 6월 양배추 전체 출하량은 노지봄양배추 출하량 증가로 작년 동월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6월 시설봄양배추 출하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작년보다 2% 적을 전망이다.
- 6월 노지봄양배추 출하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작년보다 14% 많을 전망이다.

○ 6월 양배추 출하량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

구분	시설봄	노지봄	전체
출하면적	-1.1	4.7	3.6
단수	-0.6	8.6	6.8
출하량	-1.7	13.7	10.7

□ 가격전망 : 6월 가격 작년과 전월보다 낮을 전망

○ 6월 양배추 상품 8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 (8,540원)과 전월(11,410원)보다 낮은 6,5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6월 중·하순 가격은 호남 및 충청으로 출하지역이 확대되면서 상순 대비 하락할 전망이다.

○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원/8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6	상품	4,798	5,468	6,464	9,915	11,414							
	중품	3,180	3,685	4,818	7,881	8,668							
2015	상품	4,103	5,069	5,345	5,066	8,553	8,543	5,920	6,441	5,815	4,048	3,186	3,203
	중품	2,694	3,785	4,451	4,183	7,024	6,462	4,291	5,130	4,540	2,866	2,338	2,388
2014	상품	3,449	2,933	2,919	2,460	3,290	3,350	4,343	2,924	3,373	3,108	3,279	4,181
	중품	2,447	2,328	2,420	2,009	2,476	2,751	3,367	2,191	2,646	2,449	2,692	3,133
평년	상품	5,809	6,190	5,759	4,766	5,958	4,598	4,661	6,845	6,670	4,479	3,494	3,853
	중품	3,836	4,144	4,414	3,683	4,722	3,722	3,438	4,810	4,701	3,116	2,561	2,833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6. 20.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6/20)	1주일전 (06/1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200	39,800	41,467	↓ 9.0	↓ 12.7
	콩(백태)	35kg	150,000	150,000	150,000	139,000	186,467	↑ 7.9	↓ 19.6
	고구마(밤)	10kg	31,000	30,600	31,200	36,000	37,080	↓ 13.9	↓ 16.4
	감자(수미)	20kg	22,000	24,600	41,600	29,850	23,497	↓ 26.3	↓ 6.4
채 소 류	배추(봄)	1kg	600	580	1,164	678	472	↓ 11.5	↑ 27.1
	양배추	10kg	7,400	5,800	12,480	8,150	5,367	↓ 9.2	↑ 37.9
	오이(다다기계통)	10kg	15,333	13,000	11,000	15,778	16,311	↓ 2.8	↓ 6.0
	애호박	8kg	16,000	12,000	11,360	11,850	12,297	↑ 35.0	↑ 30.1
	토마토	10kg	13,400	13,200	16,120	16,300	15,767	↓ 17.8	↓ 15.0
	당근	20kg	30,000	31,400	33,120	30,000	32,993	0.0	↓ 9.1
	건고추(화건)	60kg	710,000	710,000	710,000	820,000	834,000	↓ 13.4	↓ 14.9
	풋고추	10kg	36,600	31,600	37,480	38,450	35,317	↓ 4.8	↑ 3.6
	마늘(깐마늘)	20kg	180,000	175,000	175,000	105,500	104,900	↑ 70.6	↑ 71.6
	양파	20kg	14,000	15,000	13,760	18,200	15,597	↓ 23.1	↓ 10.2
	대파	1kg	1,840	1,920	2,246	2,463	1,499	↓ 25.3	↑ 22.7
	파프리카	5kg	14,200	17,200	15,400	14,800	20,573	↓ 4.1	↓ 31.0
	멜론	8kg	26,000	27,400	27,000	26,300	29,721	↓ 1.1	↓ 12.5
	방울토마토	5kg	12,200	12,200	14,440	13,300	12,633	↓ 8.3	↓ 3.4
	수박	1개	12,400	14,000	15,440	13,650	13,723	↓ 9.2	↓ 9.6
과 일 류	사과(후지)	10kg	36,000	37,200	36,760	45,200	54,489	↓ 20.4	↓ 33.9
	배(신고)	15kg	46,000	44,600	44,400	39,600	55,698	↑ 16.2	↓ 17.4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6/20)	1주일전 (06/1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6,000	527,000	525,800	532,000	559,667	↑ 0.8	↓ 4.2
	느타리버섯	2kg	15,200	13,100	13,600	15,600	13,813	↓ 2.6	↑ 10.0
	새송이버섯	2kg	7,600	7,400	8,000	8,400	8,107	↓ 9.5	↓ 6.3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658	7,585	7,331	6,458	5,928	↑ 18.6	↑ 29.2
	돼지고기(삼겹살)	100g	2,190	2,236	2,024	2,298	2,180	↓ 4.7	↑ 0.5
	닭고기	1kg	5,551	5,183	5,233	5,525	5,555	↑ 0.5	↓ 0.1
	계란(특란)	30개	5,374	4,912	5,243	5,834	5,807	↓ 7.9	↓ 7.5
	우유	1리터	2,549	2,549	2,549	2,548	2,382	0.0	↑ 7.0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06. 20.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883 천원	5,915 천원	4,041 천원	↓ 0.5	↑ 45.6
	거세	7,453 "	7,392 "	6,086 "	↑ 0.8	↑ 22.5
송아지 (6~7월)	암	3,207 "	3,167 "	1,762 "	↑ 1.3	↑ 82.0
	수	4,098 "	3,866 "	2,479 "	↑ 6.0	↑ 65.3
육우(600Kg)		3,375 "	3,475 "	3,360 "	↓ 2.9	↑ 0.4
젖소수송아지(7일령)		368 "	361 "	216 "	↑ 1.9	↑ 70.4
돼지(110kg)		482 "	487 "	455 "	↓ 1.0	↑ 5.9
육계(원/kg)		1,555 원	1,257 원	1,551 원	↑ 23.7	↑ 0.3
계란(원/특란10개)		949 "	940 "	1,305 "	↑ 1.0	↓ 27.3
오리(원/kg)		1,667 "	1,667 "	2,333 "	-	↓ 28.5

※ '14년 경매비(천원) : 송아지 2,103, 큰소 4,728, 돼지 292/110kg, 육계 1,277원/kg, 오리 1,944원/kg(생산비), 계란 1,006원/10개, 우유 667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5.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광양시, 수박 수정별 지원 1석 3조 효과 거둬

- 노동력·생산비 절감 + 상품성 제고 + 양봉농가 소득창출 효과 -

- 광양시는 진월면 중도마을 등 섬진강변 5개 마을에서 재배하고 있는 수박농가에 수정별 공급 사업을 추진해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상품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을뿐 아니라 관내 양봉농가의 새로운 소득창출에도 이바지하게 됐다.
- 시는 올해 6천 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12농가에 1,316군(78ha)의 수정별을 지난 3월 말부터 수박 하우스에 투입해 6월 14일 현재 계획량의 90%(1,200군)를 투입 완료했다.
- 수정별을 이용한 수박 재배는 수정기간 단축, 수정노동력 절감 등 기존 방법보다 장점이 많아 농업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특히 노동력 절감 측면에서 인력수정에 비해 80%이상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비의 50%를 절감하는 등 수박 재배농가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
- 이에 광양시는 올해 당초 수정별 1,120군 지원 계획을 변경하여 1,316군으로 늘리고 부족한 예산 1천만원을 추가 확보해 신청농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송명석 미래농업팀장은 농촌 고령화로 농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수정별을 이용한 수박 재배로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 관내 전 수박 재배농가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광양시

■ 보성군, 시설원예농가 스마트 팜으로 첨단농업 실현

- 오는 6월말까지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설치 추가 신청 가능 -

-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스마트폰으로 시설환경을 매우 편하게 제어하여 농촌 인력의 고령화 및 인력감소, FTA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온실 내부의 온도·습도 등을 조절하여 작물의 최적 생육 조건을 조성하고 온실의 천·측창 개폐, 양액 급여 조절, 차광 및 난방기 운전 등의 원격제어가 가능한 복합환경제어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 특히 시설원예분야 ICT 사업으로 생산성과 품질향상, 생산비 절감은 물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시설환경을 제어할 수 있다.
- 군은 2016년 사업비 3억 6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설치를 희망하는 관내 시설원예 및 과수 농업 경영체에서는 오는 6월말까지 각 읍·면 농민상담소를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 지난해 사업을 추진했던 득량면 토마토 농장대표는 “매년 각종 병해충 때문에 토마토를 단기재배 했었는데,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나서 장기재배를 할 수 있게 되어 생산량이 16%이상 늘었으며 온실관리 시간도 절반으로 줄어 여가생활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출처 : 보성군

■ 강진군, 강진건강 10대 농식품 여주 본격 육성

-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여주 생산, 유통시장 확대 -

- 전남 강진군이 강진 건강 TOP 10 농식품인 여주의 생산과 유통 시장 확대에 나선다.
- 강진군은 현재 30농가 6.2ha 면적에서 여주를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 3억원에 이르는 고부가가치 작물이다.
- 지난 14일 여주 가공식품 대표 업체인 작천면에 위치한 (주)남도농산이 여주를 활용한 음료와 차 전문 식품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 이번에 준공된 식품공장은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보조금 6억원과 자부담 4억원, 총 10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6월에 착공, 올해 4월부터 시운전을 실시했으며 최첨단 가공시설장비 HACCP(식품위해중점관리)을 갖췄다. 여주를 비롯한 작두콩·돼지감자·방풍 등을 활용한 각종 차 종류와 여주음료 등을 본격 생산할 예정이다.
- (주)남도농산에서 생산하는 여주 액상차는 여주 특유의 쓴맛을 제거하여 남녀노소 쉽게 음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췄다. 또한 PET병 제품으로 음용의 편의성을 강화했으며 2015년 3월부터 미국 서부지역에도 수출하고 있다.
- 박수철 부군수는 “남도농산이 최첨단 생산장비와 HACCP시설을 갖추어 강진여주의 대외경쟁력이 높아지게 되어 농업인 소득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여주는 강진건강 TOP10 농식품 중 하나로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분야를 집중 육성했으며 금년에는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는 등 판로개척과 유통시장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강진군

■ 해남군, 뜬섬 108ha 친환경 쌀 재배 본격 시작

- 농업과 환경 공존 친환경 생태지구 조성 -

- 해남군이 환경과 농업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지구로 육성중인 마산면 뜬섬지구에 대한 친환경 쌀 재배가 본격 시작됐다.
- 영암호 한가운데 조성된 뜬섬은 전체 193ha 중 개답 공사가 끝난 108ha에 대해 지난해 처음으로 일시 경작을 실시, 전체 면적을 친환경 벼 재배단지로 조성했다.
- 올해도 105ha는 마산면 90여 농가에서 우렁이 농법과 토종붕어 방사 등을 통해 무농약 쌀을 생산하고, 3ha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친환경 벼 시범포를 운영, 친환경 자재 병해충 효과분석과 적정 과종량 등 효과적인 친환경 재배를 위한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 영산강 간척사업으로 수위가 낮아지면서 담수호의 한가운데 생겨난 뜬섬은 천연기념물 제228호인 흑두루미 등 희귀조류와 겨울철새들의 중간기착지로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뜬섬의 특징을 살려 해남군은 뜬섬 전 지역을 친환경 벼 재배단지로 조성, 자연 생태계 복원과 친환경 농업 확대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 더불어 농지 외 지역에 습지 공원과 생태체험장 등을 만들어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는 등 환경과 농업이 결부된 성공 사례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뜬섬 지구는 현재 80% 이상 모내기가 마무리된 상태로 해남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일 간척지 내 친환경 벼 실증시험포 3ha에 신동진 및 하이아미종 벼를 이앙했다.

* 출처 : 해남군

■ 장성군, 명품 장성베리, 맛도 영양도 Very Good~!

- 장성군농업기술센터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환경에서 자란 복분자·오디·블루베리 등 베리류 과일이 올해 약 180ha에서 700톤 가량 생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최근에는 최적의 자연조건을 갖춘 장성에서 생산된 베리류의 뛰어난 맛과 당도가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있다고 전했다.
- 현재 장성에서 새로운 고소득 대체작물로 적극 육성하고 있는 베리류는 복분자·오디·블루베리·아로니아로 이중 하반기에 수확하는 아로니아를 제외한 3종은 이달 초부터 인기리에 판매중이다.
- 혈압과 당뇨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디는 1kg당 8,000~10,000원의 시세를 보이고, 10대 슈퍼푸드로 인정받고 있는 블루베리는 베리류 중 가장 높은 가격대(1kg당 15,000~25,000원)를 유지하고 있다.
- 특히 양질의 토양과 밤낮의 큰 일교차로 인해 뛰어난 맛과 당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복분자는 재배규모가 100ha에 이르는 장성의 대표적 과일로 자리잡고 있으며 1kg당 9,000~15,000원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 장성군농업기술센터는 장성의 베리류가 시장을 선점하고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로 장성이 갖춘 천혜의 자연조건과 함께 지속적인 기술교육과 명품화사업 등을 통한 각종 지원을 손꼽았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4억원을 지원해 면적확대는 물론 가공까지 아우르는 6차산업까지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 베리류 구입은 9월까지 가능하며, 구입 관련 문의는 장성군 농업기술센터(☎061-390-8415)로 연락하면 된다.

* 출처 : 장성군

■ 신안군, ‘신안 대파’ 명품화를 위한 무농약 시범재배 추진

- 관수방법 개선, 소석회와 쌀뜨물 등을 이용한 친환경 재배농법 도입 -

- 신안군이 대표 특화품목이며 소득작목인 ‘신안 대파’를 명품화하기 위해 친환경 무농약 시범재배에 나섰다.
- 군에서는 일본의 대파 재배농법 중 우수한 사례를 수집하여 임자도와 자은도 등 시범적으로 5농가를 선정, 1ha에 4천여만원을 들여 ‘신안 대파’ 명품화를 위한 친환경 시범재배를 추진한다.
- 대파 친환경 무농약 시범재배는 복토 및 관수방법을 개선하고 설탕발효액, 소석회, 쌀뜨물 등을 이용하여 각종 병해충을 예방하며 성장촉진제로 수용산 규산을 활용하는 등 일본 무농약 대파 재배 농가의 경험과 사례를 시범재배 농가에 적용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친환경 무농약 시범재배를 시도하게 되었다.
- 신안 대파는 임자도·자은도 등에서 658농가가 1,126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전국 겨울대파 생산량의 13%, 전남 생산량의 34%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산 겨울대파의 경우 23,589톤을 생산, 353억원의 소득을 올린 신안군의 대표적인 특화작목이다.
- 신안군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시범재배로 생산된 대파는 앞으로 백화점 등에 전량을 납품할 계획으로 대파 재배농가의 소득이 훨씬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년 시범재배를 통해 성과 분석 후 앞으로 친환경 재배면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신안군

6.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순천시, 농·특산물 수출 활기

- 14일 태국에 이어 15일에는 미국에 순천시 농·특산품 한과, 반찬류 등 31개 품목이 수출 길에 올랐다.
- 이번 수출은 7800만원 상당의 김치, 장류 등으로 그 동안 수출 주 품목이었던 한과, 반찬류에서 품목이 확대된 데 그 의미가 크다.
- 무말랭이·깻잎김치 등 신규품목의 태국 수출은 K-Market 방콕 대표가 지난 달 수출협의 차 방문해 농업회사법인 고산(주)의 마을 반찬 사업장의 생산시설 및 샘플을 보면서 성사됐다.
- 또한, 미국 수출은 지난 해 9월 시온마켓 판촉행사 이후 시장 경쟁력이 입증된 품목의 꾸준한 수출로 지금까지 5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으며, 이번에 선적되는 유과·강정 등 한과를 시작으로 점차 그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처럼 태국과 미국의 수출이 활기를 띠는 데는 시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에이전트를 활용해 농가와 수입업체를 연결하고 선적, 수출 신고, 통관 등 복잡한 업무를 대행해 농가가 수출에 접근하기 쉽게 도와주고 있다.
- 시 관계자는 “동남아시아 시장의 거점인 태국 내 안테나숍을 운영해 시음, 시식 등을 통한 소비자 반응을 피드백으로 수출 유망 품목 발굴로 수출을 확대하고 8월 중 미국 시카고 판촉행사로 중부 시장을 개척해 해외 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출처 : 순천시

■ 올 여름철 멜론류 과실 수출...전년보다 소폭 증가 전망

- 여름철 우리 멜론류의 주요 수출품목인 참외와 멜론·수박의 수출 실적이 작년보다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현재 생산현장 분위기를 바탕으로 이 세 품목의 올해 수출을 전망해 본다.
- 참외 : 성주군청이 집계한 지난 5월까지의 수출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24만 7,334달러)보다 소폭 감소한 20만 4,690달러로 집계됐다. 하지만 성주군청은 올해 참외 수출이 지난해 수출실적인 61만 6,801달러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화방 생산이 작년보다 늦고 주춤해 초반 수출이 부진했지만 이화방부터는 작황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이다.
- 말레이시아 수출이 크게 증가한 점도 참외 전체 수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실제 성주참외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월향농협의 말레이시아 수출실적(5월 누계)은 29만 4,243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수출실적인 1만 4,328달러를 훌쩍 넘는 수치다.
- 반면, 우리 참외의 주 수출국인 일본과 홍콩 시장은 전년 대비 수출이 조금 부진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수출업체는 이 두 시장에서 우리 참외 판매행사가 예정돼 있어 관련 시장 수출도 곧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 멜론 :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지난 5월까지의 멜론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6.8% 증가한 50만 달러다. 하지만 수출업체들은 올해 수출에 대해 낙관은 아직 이르다는 분위기다. 2년 이상 계속된 마이너스 행진이 쉽게 끊어질리 없다는 것이다.

- 실제로 지난 4월까지의 우리 멜론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30% 하락한 20만 달러였다. 2015년 수출은 실적면에서 전년 동기 대비 2% 하락했지만 물량이 18.86%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수출업체가 체감한 수출은 2% 이상 감소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 수박 : 지난 5월까지 전년대비 211%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수출실적은 14만 1,000달러다. 이는 4월초 수박의 국내 시세가 평년 대비 25%정도 하락하면서 함안 등 남부지역의 농가들이 국내 유통 대신 수출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 여기에 일본 바이어들이 현지 수박이 유통되기 전, 우리 수박 수입을 미리 요청해 수출 물량을 확보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정읍에서 생산된 씨 없는 수박은 바이어의 수입요청으로 축성 재배해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수출을 진행했다.
- 이달부터는 일본에서 여름 수박이 본격적으로 출하돼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물량이 나가고 있어 총 수출실적은 소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7.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우슬 GAP 고품질 생약재 생산을 위한 적정 작휴방법 구명

□ 기술개발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우슬 작휴 및 재배 연수별 수량성은 평휴 비닐피복 1년 재배보다 고휴 부직포피복 2년 재배가 종실량 40~68%, 건근 수량 11~20% 증수되었음

□ 개발기술 기대효과

- 채종 및 건근 수량 656,000원/10a 소득증대 효과
- 경제성 분석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 자재 구입비 87,400원 - 고휴 부직포, 피복 노력비 1인 5일×56,520= 282,600원 - 계(A) : 37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실수량 : 11kg, 330,000원 - 건근수량 : 22kg, 550,000원 - 계(B) : 880,000원
○ 추정수익액(B-A) = 510,000원	

□ 개발기술 현장활용 방법

- 경운 정지 후 두둑 90cm에 고랑 30cm로 깊게 파고 두둑을 높게(20cm) 만들어 폭 120cm 흑색 부직포로 잘 덮어 고정핀을 이용하여 정밀하게 피복작업을 함
- 재식거리는 주간거리 20, 조간거리 10cm 간격으로 3~4립 정도로 4월 중·하순에 파종함
- 평휴 비닐피복 1년 재배에 비하여 고휴 부직포피복 2년 재배로 할 경우 우량 종자 확보 및 장대근 고품질 안정생산에 유리함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명석

■ 우슬 GAP 고품질 생약재 생산을 위한 적정 시비방법 구명

□ 기술개발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시비방법은 표준비 전량 시용에 비하여 표준비, 유기질 비료를 2회 분시할 경우 종실 수량은 1.2~1.5배, 건근 수량이 3~9% 증대되었음

□ 개발기술 기대효과

- 채종 및 건근 수량 656,000원/10a 소득증대 효과
- 경제성 분석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 비료자재 구입비 30,400원 - 고휴 부직포, 피복 노력비 1인 5일×56,520= 282,600원 - 계(A) : 313,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실수량 : 13kg, 390,000원 - 건근수량 : 20kg, 500,000원 - 계(B) : 890,000원
○ 추정수익액(B-A) = 577,000원	

□ 개발기술 현장활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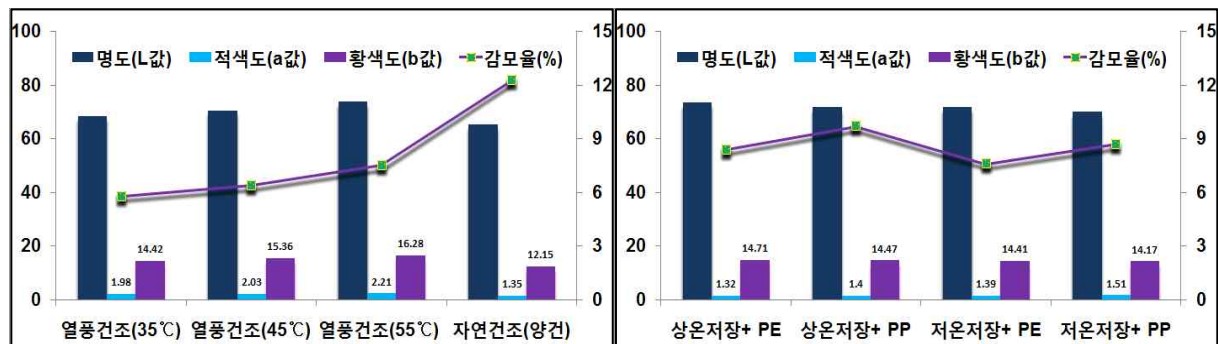
- 경운하기 전 부숙이 잘 된 혼합 유박 퇴비 600kg사용하고 밑거름으로 질소 4, 인산 4, 칼리 4kg 살포, 질소 1, 칼리 2kg/10a씩 2회 추비함
- 1년차 시비방법은 퇴비, P_2O_5 전량기비로 하고 $N \cdot K_2O$ 를 기·추비는 40%(4월 중순), 60% (7월 중, 8월 중순 2회) 분시하고
- 2년차 시비방법은 1차 추비(퇴비, P_2O_5 , $N \cdot K_2O$ 40%, 3월 상순), 2·3차 추비 ($N \cdot K_2O$ 60% : 5월 중순, 7월 중순 2회) 분시함
- 경운 정지한 다음에 두둑 90cm에 고랑 20cm로 깊게 만들어 폭 120cm 흑색비닐이나 부직포로 잘 덮어 고정판을 이용하여 정밀하게 피복 작업을 함
- 재식거리는 주간거리 30, 조간거리 10cm 간격으로 3~4립 정도로 4월 하순에 파종함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명석

■ 우슬 GAP 고품질 생약재생산 적정 건조 및 저장법 구명

□ 기술개발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적정 건조방법은 열풍 건조기 온도를 45℃로 1차 건조는 수분함량을 85~90%, 2차 건조는 수분함량을 14~15%로 말리면 색도 양호하였음
- 포장재료별 저장조건은 PP 포장, 상온저장보다 PE 포장, 저온저장처리가 공기와 노출이 비교적 적은 장기간 안정된 색도를 유지하였음
- 우슬의 GAP 안정생산을 위한 건조 및 저장조건 구명(2015)



□ 개발기술 기대효과

- 적정 건조저장 수확 후 관리 기술개발로 고품질 생약재 안정생산 기반 구축
 - 열풍 건조기 45℃ 건조, PE 포장, 저온저장 시 777,660원 소득증대
- 경제성 분석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건조 상품수량(62.6시간) : 686,8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4kg(15.2% 감모율) × 17,000원(중품) - 건조 노력비 : 254,34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 1.5일 × 56,520원 × 3회 - PP포장 상온저장 상품수량 : 452,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6kg(9.7% 부패율) × 17,000원(중품가격) - PP포장 가격 : 3,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원/개 × 3개 - 계(A) : 1,396,340원 ○ 추정수익액(B-A) = 777,66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풍건조 상품수량(10.5시간) : 955,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9.8kg(22.2% 감모율) × 24,000원(상품) - 전기요금 : 523,4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kw × 381.6원/kw(농업용) × 25.4hr × 3회 - PE포장 저온저장 상품수량 : 686,4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6kg(6.4% 부패율) × 24,000원(상품가격) - PE포장 가격 : 9,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0원/개 × 3개 - 계(B) : 2,174,000원

□ 개발기술 현장활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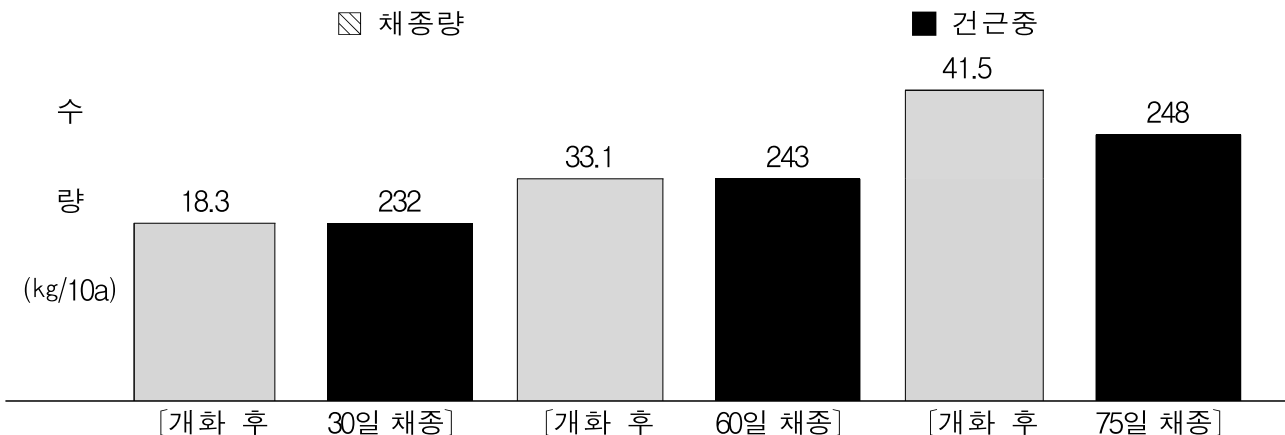
- 적절한 건조방법은 열풍 건조기를 이용하여 세척된 뿌리를 1차 건조할 때 온도조건은 45℃(풍속 2.5~3.0m/s)로 하여 4.2시간 말릴 경우 건조된 뿌리의 수분함량이 85~90%정도임
- 1차 건조한 뿌리를 2차 건조할 때 6~7시간 정도 말릴 경우에 건조된 뿌리의 수분 함량이 14~15%정도이면 건조된 뿌리의 색도가 양호하였음
- 포장재료별 저장조건은 PP 포장, 상온저장보다 PE 포장, 저온저장처리가 공기와 노출이 비교적 적은 장기간 안정된 색도를 유지하였음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명석

■ 우슬 우량종자 안정생산을 위한 채종 적기 구명

□ 기술개발 내용(2015년 연구결과)

- 우슬 채종 시기별 종실수량은 개화 후 45<90<60<75일 순으로 착과수, 종실수가 많아 개화 후 30일(18kg/10a)대비 1.5~2.3배 증수됨
- 생육 및 뿌리 수량은 개화후 30일에 비해 개화 후 60일과 75일 채종에서 생경엽중 2.7~3.6g/주, 상근중 비율 1~2%, 건근 수량도 3~5% 증대되었음
- 우슬 우량종자 생산 적정 채종시기(2015년)



□ 개발기술 기대효과

- 채종 및 건근 수량 795,440원/10a 소득증대 효과
- 경제성 분석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슬 종자 구입비 60,000원 - 채종노력비 1인 3일×56,520=169,560원 - 계(A) : 229,56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되는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실수량 : 23kg(41.5-18.3)=575,000원 - 건근수량 : 18kg(250-232)=450,000원 - 계(B) : 1,025,000원
○ 추정수익액(B-A) = 795,440원	

□ 개발기술 현장활용 방법

- 경운하기 전 부숙이 잘 된 혼합 유박 퇴비 600kg시용하고 밑거름으로 질소 8, 인산 14, 칼리 8kg 살포, 질소 2, 칼리 2kg/10a씩 2회 추비함
- 두둑 90cm에 고랑 20cm로 깊게 만들어 흑색비닐이나 부직포로 정밀하게 피복작업하고 주간거리 30, 조간거리 10cm 간격으로 4월 하순에 파종함
- 우슬의 개화정도가 50% 개화되었을 때 개화 후 75일(9월 하순) 채종하면 개화 후 30일 채종(8월 상순, 종실 18kg, 건근중 232kg/10a)에 비해 종실량은 2.3배, 건근 수량은 5% 증수되어 채종 적기였음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김명석

■ 벼 부분경운 이앙으로 생산비 절감 효과 커

- 생산비를 5.2% 절감 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경운과 이앙을 동시에 하는 벼 부분경운 이앙기 현장 연시를 6월 15일 실시하였다.
- 벼 부분경운은 벼를 심기 전에 2회의 경운 로타리 작업과 씨레질을 한 후 이앙하는 4단계의 작업을 1회에 가능하게 한 것으로 생산비를 5.2% 절감 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 전남농기원에서는 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벼 부분경운 이앙 기술을 이전 받아 전국 최초로 2013년부터 현장 실용 기술을 개발하여 2015년 강진군에 2개소의 벼 생산비 절감 시범단지를 조성하였다.
- 이날 연시에서는 2015년 이앙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한층 더 개선된 부분경운 이앙기를 선보였다. 이 부분경운 이앙기를 생산하고 있는 전남 나주시 소재 (주)희망농기계(대표 이리중)는 농가에서 사용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 앞으로는 벼농사가 쉬어져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모내기 현장에서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도 농정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친환경농업연구소 양승구 연구사는 벼 부분경운 이앙 기술은 벼 일반재배에 국한된 육묘단계를 생략한 무논점파 재배와 무논 줄뿌림 재배에 비하여 친환경농업에 적합한 기술이라며, 친환경 벼 재배에 있어 직파재배 기술의 단점인 제초제 방제와 앵미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과 토양 물리성 개선 및 저탄소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콩 생산비 절감 성공 모델농가 양성

- 트랙터 이용 두둑만들기, 파종, 제초 동시작업과 기계수확으로 노동력 35% 절감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정밀 기계점과와 기계수확 등 생산비 절감 패키지 기술을 도입한 콩 생산비 절감 성공 모델농가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 금년도 콩 생산비 절감 모델 실증농가는 순천시 주암면 조명익(48) 대표, 조대표의 콩 재배면적은 3ha에 이른다. 그러나 그동안 산파(흙어뿌림) 재배로 인해 균일한 생육 관리가 어려워 생산성이 떨어지고, 종자비도 증가하였다. 또한, 파종 후 제초작업이 어렵고, 수확작업의 기계화가 미흡하여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겪고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대표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한 생산비 절감 모델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콩 생력 기계화 재배기술 실증'이란 사업계획서를 발표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금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정대표가 금년에 전남농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실증투입하게 되는 생산비 절감 기술은 파종작업 생력화를 위해 두둑형성, 토양피복, 농약살포, 종자파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트랙터 부착형 일괄작업 파종기와 수확작업의 생력화를 위해 범용콤바인을 도입하게 된다.
- 콩 파종시기를 맞아 전남농업기술원과 순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괄작업 파종기술 확산을 위해 지난 6월 17일 오전 순천시 주암면 창촌리 들녘에서 콩 재배농업인과 관련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괄작업 파종기 이용 콩 파종' 연시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연사회에서는 두둑성형과 비닐피복, 농약살포, 종자 파종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파종기술을 선보이고, 농가 보급 확대를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시간도 가졌다.
- 전남농업기술원 생산비절감팀은 “정밀 기계점과 시 종자량을 10a당 7.5kg에서 5kg로 2.5kg 절감할 수 있고, 노동력이 획기적으로 절감되어 생산비를 8.2% 까지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기계 이용 정밀 파종으로 관행 산파시 보다 수량을 9%까지 증가시킬 수 있어 kg당 생산비는 19.5% 절감 할 수 있으며, 노동력도 35.4%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임경호 농업경영연구소장은 “현재 콩 기계화율은 벼농사에 비해 낮다. 특히 파종, 수확작업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체계적인 모델농가 지원을 통해 반드시 성공모델로 양성하고, 우수사례를 신속히 확산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자두와 살구 맛을 동시에 맛 볼 수 있어

- 새콤·달콤한 과일... 플럼코트 본격 시장 출하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과 나주시는 플럼코트 유통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농산물유통센터(APC)와 연계하여 공선출하 체계를 구축하고 6월 13일 첫 공선을 시작으로 시장에 선보이게 된다고 밝혔다.
- 플럼코트는 농촌진흥청에서 자두와 살구를 교잡하여 만든 새로운 과종으로 외관은 살구와 유사하게 보이나 유전적으로 자두와 살구가 절반씩 섞여있다.
- 또한, 살구의 달콤함과 자두의 향기로운 과즙이 어우러져 새콤·달콤하며 다른 과일에 비해 페놀과 플라보이드와 같은 항산화물질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나주시에서는 2011년부터 배 시장 축소 등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신규 유망 대체작목으로 플럼코트를 심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65농가 27ha를 재배하여 전국 150ha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 한편, 나주시가 전국에서 플럼코트 시장을 선점하고 규모화가 될 수 있도록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2015년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 4억원을 지원하여 면적확대 및 관수, 덕 시설 등을 보완 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아열대과수 패션프루트 현장컨설팅 추진

- 열매가지 유인방법, 인공수분 등 핵심기술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기후변화에 대응 새로운 소득작물인 패션프루트(백향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남부지방에서 패션프루트는 4월 중순 이후 정식을 시작으로 열매가지를 지속적으로 유인해야 하며 꽃이 피면 제때에 인공수분을 해줘야 한다.
- 전남농기원 과수연구소 박재옥 박사는 현장 컨설팅에서 덕 아래에 있는 새순과 꽃은 즉시 제거하여 양분손실을 막아야 하며, 덕높이 이상 자란 줄기는 두 줄기를 양쪽으로 유인하여 열매가지로 쓰거나 새로운 측지를 착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인공수분 적정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로 붓이나 면봉을 이용해서 다른 꽃의 꽃가루를 채취하여 암술머리에 묻혀줘야 자연수분 8%에 비해 수정율이 85.8%로 높다고 강조했다.
- 패션프루트는 백향과라고도 불리며 남미의 브라질, 파라과이 등 아열대와 열대지역 해발고도 1,000~2,000m의 고산지역이 원산지로서 다년생 상록 덩굴식물이다.
- 전남지역 패션프루트 재배면적은 59농가 11.05ha이며 시설재배가 10.62ha, 노지재배가 0.13ha이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정용수 원예특작담당은 기후변화에 대응 패션프루트가 전남에서 고소득 작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30% 차광·멀칭재배하면 여름철 국화 수량과 품질 향상

- 10a당 수량 33% 증수되고 품질향상 -

- 전남농업기술원은 여름철 비닐하우스에 국화를 재배할 때 반사필름으로 피복하고, 30% 차광재배하면 상품화율과 수량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 차광은 광조절과 기온 및 지온을 낮춰 작물의 생장촉진, 절화장의 신장, 블라스팅 경감, 병해발생 감소 등의 효과가 있고, 멀칭재배는 잡초발생 억제, 토양수분 유지, 수량과 품질향상에 기여하는데 멀칭 재료로 반사필름을 이용하면 빛의 반사로 광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은 국화 백광품종을 5월 10일 정식해 14일에 1회 적심했을 때 무멀칭·무차광은 절화장이 47.2cm였으나, 반사필름에 30% 차광 재배구는 12.3cm가 더 긴 59.5cm였고, 10a당 수량도 5만 7천본으로 1만 4천본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 또한 흑색필름으로 멀칭하면 절화장이 50.8cm이고 수량도 5만 3천본으로 반사필름에 크게 못미치며, 차광율을 50%로 높이면 절화장은 59.6cm로 30% 차광과 비슷하나 10a당 수량이 5만 5천본으로 30% 차광에 비해 2천본이 떨어진다.
- 전남농업기술원 차성충 지도관은 “국화는 개화기 조절이 용이하고 장일하에서도 개화가 가능한 품종과 가온재배로 연 3기작도 재배할 수 있다”며 “여름철 생산에서 수량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광과 반사필름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전남농기원 운영 농식품 창업가 양성과정 중간성과 높아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산업분야에서 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3일부터 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식품 창업가 양성과정 교육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양성과정에 참여한 수강생들 17명이 특허, 창업자금 지원 등에 성과를 나타냈다. 분야별 창업성과로는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 K-스타트업 창업경진대회 2명 입선, 청년창업가 2명 선정, 중소기업청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창업아이템에 3명이 선정, 특허(농작물 수확용 이동대차)를 출원하였다.
- 전남농기원은 수강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에 필요한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11일간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의 성공마인드, 기술변화 동향, 브레인스토밍으로 창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창업으로 만들어진 제품판매를 위한 목표시장과 예상 매출액 분석, 성공사례 등이다.
- 농업경영연구소 김덕현 연구사는 “농식품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 하기 위하여 “남은 교육기간에 창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알선”을 위한 교육을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8. 정책 동향

◆ 2015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72천톤, 정부로 이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에 매입하여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건조저장시설(DSC)에 보관 중인 2015년산 공공비축 산물벼 76천톤 중 72천톤을 6월 14일부터 정부로 일괄 이관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매년 농가 편의 제고를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량 중 일부를 RPC 등을 활용하여 산물벼('15년 전체 매입량 360, 포대벼 284, 산물벼 76천톤)로 매입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산물벼 매입에 참여한 RPC 등이 안정적인 원료곡 확보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 인수의향을 물어 인수시키고 있다.
- 금년에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공공비축 산물벼를 보관 중인 전국 269개 RPC 등을 대상으로 인수 의향조사를 실시하였고, 16개 RPC 등이 약 4천톤의 산물벼를 자체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RPC 등의 산물벼 인도(자체인수) 가격은 지난해 수확기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에 수확기 이후부터 5월까지 쌀값 변동률을 반영하여 등급별로 확정되었으며, 1등급 벼 40kg 기준 48,627원이다.
- RPC 자체 인수물량 4천톤을 제외한 72천톤은 6월 14일부터 매입 검사를 거쳐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옮겨질 예정이며 정부양곡으로 활용하게 된다.

- 농식품부는 최근 쌀값이 지난해 쌀 생산증가, 쌀 소비감소 등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조곡 거래 활성화, 쌀 가격 안정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농식품부는 정부 양곡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재고 관리대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가공용 국산쌀 특별할인 공급기간 연장('16. 8월말까지 → '16. 12월말까지), △비식품 제조업 대상 가공용쌀 공급(연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 추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농식품부는 금번 산물벼 인수 과정에서 RPC 등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RPC 인수물량 결정방법 개선, 산물벼 매입대금 납부기간 연장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개별 RPC 등이 보관물량을 전량 자체 인수하거나 정부에 인도해야 했으나,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RPC 등의 산물벼 매입대금 납부기간도 작년 15일에서 금년 약 40일로 연장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물벼 정부 이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지난해 마련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과 '재고관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016년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 지구 6개소(경산·괴산·남원·보성·의성·정선)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기업유치, 주거 및 생활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수인력과 자본이 집중되는 활력 거점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 선정된 지역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 취지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3년 동안 최대 80억원 (1개 지역 기준, 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는다.
- 이번 사업은 시·군 공모를 통해 56개의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단계별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한 것이다.
- 먼저, 농식품부는 농공단지, 관광산업, 특화산업, 기타산업 4가지 기본 유형을 제시하고,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사업모델 개발을 유도하였고 서면·대면, 현장평가, 종합토론 등 전문가 평가단 평가를 거쳐 성과 달성 가능성이 높은 유형별 1~2개 지역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 농식품부는 전문가 및 민간 컨설팅 업체로 구성된 자문단을 활용하여 지역에 특화된 사업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산업, 문화, 복지 등 분야별 분산 추진되던 지역개발사업을 통합 조정하여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형 시설원에 삼중발전 시스템 개발

- 냉·난방, 탄산가스, 전기 통합 공급... 스마트 팜 실현 성큼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시설원에 온실에 냉·난방, 탄산가스, 전기까지 통합 공급할 수 있는 한국형 시설원에 삼중발전 시스템을 한국기계연구원, 경남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2년간 연구 끝에 개발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시설원에 농가가 유류연료인 등유를 주로 사용함에 따라 효율성이 낮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많고 유가변동에도 취약한 단점이 있다.
- 난방으로 등유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 공급을 위해 액화탄산을 따로 사용하는 파프리카는 연 8,000~9,000만원/ha 비용이 투입될 정도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 시설원에 선진국인 네덜란드는 시설원에 삼중발전 시스템을 이용해 온실에 난방, 탄산가스 시비와 전기를 통합 공급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중 10%를 온실에서 만들어진 전기로 공급할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다.
- 이에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에서는 네덜란드의 삼중발전 시스템을 본보기로 온실에 투입하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스 연료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온실 에너지 통합공급 시스템을 개발했다.
- 개발한 시스템은 열병합 발전시스템과 가스히트펌프로 구성해 온실의 냉·난방, 탄산가스 및 전기 공급까지 가능한 시스템이다.

- 유류연료 대신 가스로 가스엔진을 가동하고, 엔진을 통해 온실의 냉·난방 에너지를,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그리고 식물 성장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는 엔진의 연소반응으로 생성되는 배기가스로 만들어진다.
- 이 시스템은 농업인의 편의성을 위해 ICT와 결합해 컴퓨터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
- 실시간 컴퓨터로 온실 내 온도·습도·이산화탄소 농도를 확인하고 조절할 수 있다.
- 개발한 시설원에 가스히트펌프 삼중발전 시스템을 경남 함안 시설원예연구소 파프리카 재배온실에 적용한 결과, 기존 시스템인 온수 보일러 시스템과 액화탄산 시비에 비해 난방과 탄산가스 사용 비용이 30% 절감됐다. 또한 파프리카 품질은 비슷하고 수량은 11% 늘었다.
- 이 시스템을 파프리카나 호접란과 같이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는 온실에 적용할 경우 온실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올 하반기에 농가현장 실증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 또한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열 에너지와 같이 보조금 지원을 통해 농가에 보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9. 해외 농업정보

◆ 베트남 신선딸기 시장동향 및 수출전략

- 베트남 딸기 수입 해마다 증가 추세로,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딸기는 크게 현지인이 생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로 살펴볼 수 있다.
- 자국산의 경우, ‘썬라(Son La)’ 및 ‘럼동(Lam Dong)’ 지방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량은 연간 1,800여톤이다. 수입산은 아직 적은 편이며, 대부분 호치민·하노이 등 대도시 내 중·고소득층과 외국인 관광객, 현지 거주 외국인 위주로 소비되고 있다.
- 베트남의 딸기시장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근래 들어 고급 과일으로써 현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베트남의 딸기 수입은 2009년 이전에는 선물용으로 매년 200kg 규모로 항공을 통해 소량으로 진행됐지만, 2009년부터 해마다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실제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2009년 1만 5,494달러, 2011년 8만 3,583달러, 2013년 11만 4,965달러로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호주며, 최근에는 중국산도 유입되고 있는데 품질이 현저히 낮아 전체 수입산 딸기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수입산 딸기의 가격은 다음과 같다. 500g 기준 미국산은 40만동(한화 2만 1,000원), 베트남산 15만동(한화 7,900원)이며, 중국산은 8만동(한화 4,200원)에 불과하다. 한국산의 경우 55만동(2만9,000원)으로 현지에서 중·고가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당도와 안전성, 상품포장에 대해서 대부분의 현지 소비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베트남 통계청의 생활수준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도시 중·상위 계층(약 1,927만명)이 한해에 평균 500g의 딸기를 섭취해 가장 많이 딸기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향후 10년 간 베트남의 딸기 수요량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1,270톤에서 2019년 1,379톤, 2022년 1,471톤, 2025년 1,574톤으로 한 해 평균 2.1%의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에서 수입하는 딸기는 2015년 5월 5일 체결한 한·베트남 FTA협정에 의한 관세기준에 따라 수입관세가 0%다. 이는 내년까지 계속 유지된다. 딸기의 수입코드(HS코드)는 0810.10.00이며, 0%의 수입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수입업체는 이미 발효 중인 한·베트남 FTA 수입관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 현재 베트남에서 딸기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야채·과일·차류 안전 생산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관리 인증서(VietGAP)’를 취득해야 한다. VietGAP는 현지에서 가장 완벽한 규정 및 규칙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고급 및 대형 슈퍼마켓 입점을 위해서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이탈리아, 유제품에 원산지표시 의무화 법안 공포

-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자국 내 중소 유가공업계 보호와 수입 유제품의 범람을 막기 위해 일반 우유는 물론 치즈와 같은 모든 유제품에 우유 생산국을 표시하는 원산지표시 의무화 법안을 공포하였다고 발표함.
- 총리가 서명한 이 법안은 이미 승인절차를 위해 EU집행위원회에 제출되었음. 현재 이탈리아 전체 우유 소비량은 약 9.5% 정도 하락하였으며, 우유 가격은 리터당 0.20유로로 낙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이탈리아 낙농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이탈리아는 세계 최대 유제품 수입국으로 매일 주변국에서 2만 4,000톤의 우유와 유제품이 유입되며, 시판되는 멸균유 4개중 3개는 수입산이며, 모짜렐라 치즈에 쓰이는 원유 중 절반 이상이 수입 우유로 만들어 지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이들 수입 유제품들은 대부분 동유럽산으로 커드 등 반제품 형태로 수입되는 물량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한편 이탈리아 국민의 67%는 자국산 유제품에 대해 비싸더라도 구매 의향이 있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대형 할인점인 코나드사는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4,000만 리터의 음용유는 전량 이탈리아산으로만 판매한다고 발표함.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6. 20.(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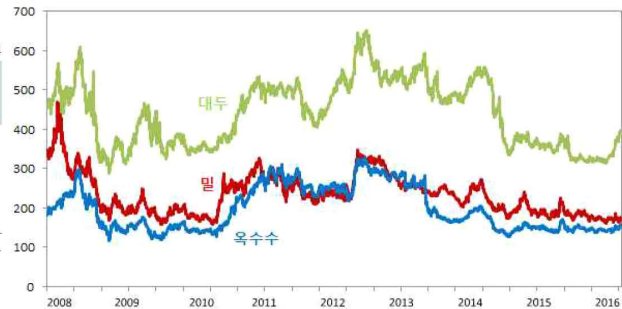
미국 중서부 지역의 덥고 건조한 날씨로 인한 옥수수 선물가격 상승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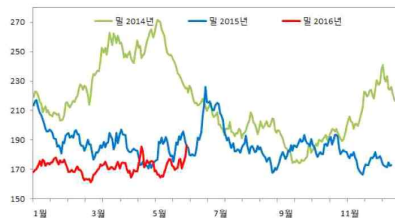
구분	기준일 ('16.06.06)	전일대비	전월평균 ('16.5)	2015 평균
밀	186.43	▲4.5%	188	186
옥수수	168.18	▲2.9%	148	148
대두	416.45	▼0.9%	353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대두: 7월물) 정산가격임.

단위 : US\$/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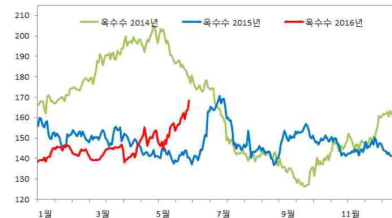


밀 선물시장 상황



밀 선물가격은 현물 이자율과 함께 4번째 장까지 연속적으로 가격이 올랐음. 기술적 매수와 매도커버로 인해 부셸 당 \$5 이상 올랐음.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의하면 7월 물 밀 선물가격은 \$5.07에서 6주간 오르고 있음. 이번 주 대부분 건조한 날씨로 인해 남부 평원의 수확이 속력을 낼 것으로 기대되 됨.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의하면 적색연질밀의 경우 부셸 당 \$5.05에서 약 8센트 정도 상승하였고, 적색경질밀의 경우 \$4.79에서 약 5센트 정도 상승하였음.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높은 기술적 매수와 이번 주간 미국 중서부 지역의 덥고 건조한 날씨에 대한 염려 그리고 높은 수출 수요로 인해 옥수수 선물가격은 상승하였음. USDA의 주간 수확량 진행 보고서에 의하면 Good/Excellent 등급의 옥수수 72%를 예상한 정부의 초기 교역량은 지난 주 이후 변하지 않았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의하면 7월 물 옥수수 선물 가격은 부셸 당 \$4.24에서 약 6센트 상승하였음.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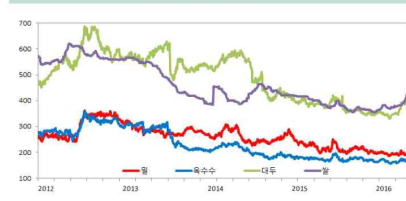


증가된 수출 수요의 높은 기대치는 남아메리카 대두 공급의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음. 기술적 매수와 에너지를 포함한 다른 상품들의 강세에 지원이 추가 되었음. 그러나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의하면 7월 물 대두와 대두박의 가격은 큰 차이 없는 수준임. USDA에 의하면 개별 수출자들은 미국산 대두를 125,000톤 가량 판매하였음. USDA의 주간 수확량 진행 보고서에 의하면 파종 된 대두 중 84%가 수확되었고, 그 중 71%가 Good-Excellent등급 일 것이라고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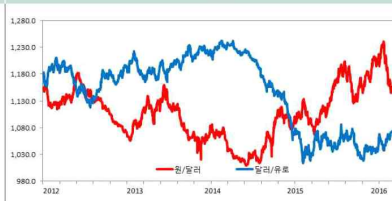
관련동향

- 밀 수출 프리미엄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높은 단기적 수요로 인해 변함없는 대두 프리미엄
- 6월 국제유가는 나이지리아 생산 차질 지속, 미 쿠싱지역 원유재고 감소 추정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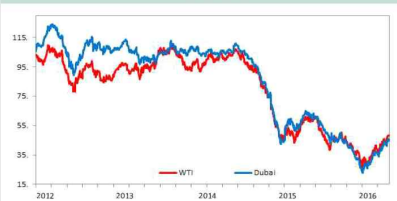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04 ▲2.0%	환율	원/달러	1,186.5 ▼0.5%
	옥수수	185 ▲0.5%		달러/유로	1.1356 ▲1.8%
	대두	436 ▼1.1%	국제유가	WTI	49.69 ▲1.1%
	쌀	427 -		Dubai	45.91 ▼0.6%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7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06.03(수출가격), '16.06.07(환율), '16.06.06(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2016 농·수산물식품 창업 콘테스트

- '2016 농·수산물식품 창업 콘테스트' 참가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창업을 꿈꾸는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본 콘테스트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회로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농·수산물식품분야 창업 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16. 5. 30.(월) ~ 7. 13.(수) 13:00까지, 45일간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창업자('11.1.1.이후 창업한 자)
- 참가대상 : 농수산물식품분야의 아이디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아이템
 - 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분야, 농수산업 ICT접목 분야, 푸드테크, 농수산물 활용 바이오 분야, 농·수산물자재 분야 등
- 신청방법
 - 2016 농수산물식품 창업 콘테스트 홈페이지 참고 (<http://www.a-creative.kr>)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공공데이터로 창업에 날개를 달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0일부터 농식품 분야 공공데이터의 대국민 이용활성화 및 활용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16년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9월까지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로 대학생, 1인 창업자, 민간기업 등 다양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우수 응모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기간 : '16. 6. 20.(월) ~ '16. 9. 30.(금)
 - 1차 서류평가(내부 전문가) : '16. 10. 7.(금)
 - 2차 발표평가(분야별 외부 전문가) : '16. 10. 19.(수)
- 수준 높은 서비스 개발과 아이디어 기획에 필요한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과 경진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 이하 농정원)에 창구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 기존에 개방된 공공데이터 이외에 민간에서 필요한 형태로 재가공된 맞춤형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신규 공공데이터를 추가 발굴하여 개방하고,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경진대회 홈페이지(<http://data.mafra.go.kr/contest>) 운영 및 상시 지원을 위한 경진대회 밴드(<http://band.us/@mafra>)를 개설하는 등 상시 운영 지원에 나선다.
- 이번 경진대회 입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 및 상금(총 31백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며, 실제 창업지원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지원을 전개한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



주간

전남농업정보

90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